

구유에 누이신 주

한인상 장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시련과 고난의 삶을 살면서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아마도 만군의 주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호화롭고 세속적으로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한 작은 유대땅 베들레헴의 어느 초라한 여관에서, 그것도 그와 모친 마리아가 들 수 있는 방이 없어 마굿간에 유하는 동안 태어나게 되었고(마태복음 2:1~12 참조) 마리아는 만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었다고(누가복음 2:7 참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과 영생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절정의 기간이라고 인간이 규명한 짧은 기간 동안의 성역을 마치시고 역시 가장 겸손하고 비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는 갈릴리



바닷가와 산위에서 또 들판이나 공회당에서 따르는 자들을 가르치실 때 늘 모범으로 가르치셨고 사랑과 참음으로 가르치셨고 관용과 친절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곧 엘로힘의 독생자로서 그의 엄청난 권세와 힘을 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나 박해자들을 대하는 데 세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구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와 조직 안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자기들이 쥐고 있는 힘을 세상에 내어 보이려고 애쓰며 그런 세속적인 힘을 이용해서 조직을 운영하거나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있는 이래로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한번도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있고 같은 민족간의 전쟁도 있으며 '나라를 위하여'라는 표어를 내걸고 치열하게 다투는 형제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태어나 베들레헴의 한 작은 사관의 마굿간 안,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마음이 겸손해져서 스스로 가졌다고 착각하는 힘이나 권세로 일을 하려 하거나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마굿간의 구유에 누어져 겸손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팽팽하게 솟아오르는 '나'에 대한 체면과

자존심과 명예와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함께 일어나 다 찬송
부르세
온 세상 죄 사하려고 주 예수
오셨네
죄 중에 있는 만물도 복주려
하시네
(찬송가 130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 3절)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탄생을 맞아
지금 우리가 부추하더라도 함께 기쁜
찬송을 부르며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가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참된 말일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10~14)

형제, 자매 여러분께 복된 성탄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성탄과 새해에
여러분께 기쁨과 영광과 평화가
깃들도록 축복해 드립니다. □

성탄절 무렵

박병규 서울 성전장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저의 마음은
한층 겸허하게 되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친히 주시기 보다는 대부분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꽤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만
이 절기에 겪었던 저의 두세 가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1956년 12월은 꽤 추웠습니다. 그때
저는 전남 함평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3이던 저는 사관학교
시험을 치르러 광주로 가야 했고
시험을 치르는 동안 외사촌 형님의
자취방 신세를 졌습니다. 형님은
방학을 맞아 시골로 가시고 불기없는
방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파고드는 냉기 때문에 다소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평화롭고
고운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어 둘러보니 “고요한
밤”을 부르는 찬양대의 노래
소리였습니다. 어두한 창 밖을
내다보았을 때 밤 사이에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려 있었습니다. 그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 회원도 아니었고 그
찬양대도 어떤 분들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 노래를 듣고 느꼈던
평화로운 마음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1968년 겨울로 생각됩니다. 광주
송정리 비행장에는 공군 기지도
연접해 있고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미군중에는 우리 회원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브루스 마티스 형제님은
그런 분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보통
체격에 키가 크신 분으로 공군
소령이며 치과 의사였습니다.
기혼자였으나 혼자만 근무지에
나오셨기에 가족을 몹시 그리워
했습니다. 신앙심이 매우 두터워
보였습니다.

그분은 주머니에 각색 풍선을
넉넉히 담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는 곳이면 찾아가 으레 그
풍선들을 붙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곤 하였습니다.
수차에 걸쳐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분은 광주와 송정리 어린이들
사이에 기쁨을 주는 미군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실로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추위에 온기를 붙여
넣어준 분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성탄절이 될 80년 12월
어느날이었습니다. 거리마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캐럴
소리가 이 계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만한 일을 곰곰히 생각하다가
우체국 앞에 서 있는 헌혈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헌혈을 작정하고 그
차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반가이
맞아준 간호원은 간단한 절차를 밟고
체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혈액이 몸에서 빠져나와 걸어
놓은 팩을 채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 희생을 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오면서 그것을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기회를 주신 그 분께

감사해야 겠다고 느꼈습니다.

이 특별하고 복된 계절이 다시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 이웃 중 누군가를 복되게 하시려 할 때 그 분이 기꺼이 쓰실 도구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수원 스테이크 5개월



이용환 수원 스테이크 부장

1992년 5월 24일 수원 지역에 주님의 시온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전체 회원 767명, 매주 성찬식 참석 인원 260여명,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스테이크일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스테이크의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스테이크 부장 부름을 받으려면 좀 더 큰 스테이크의 부장으로 부름을 받을 것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스테이크지마는 거기에는 잘 준비된 많은 신앙심 깊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그분들과 더불어 주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회원이 적은 것이 오히려 시온을 만드는 데에는 더 쉬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온이란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며 가난한 사람이 없는 지상의 주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많으면 오히려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어렵고 능력이 모자라 그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준비 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나에게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전장단 2보좌로 부름을 받아 봉사할 때 지상에서 주님의 시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잘 준비된 회원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겸손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올 때 그분들을 맞이하는 성전 봉사자는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바로 그러한 곳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것이 스테이크 부장으로서의 꿈이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 받은지 5개월, 수원 스테이크를 시온으로 만들기엔 커녕 선교부장님이 오셔서 교회가 이렇게 청소도 안되고 지저분하느냐고 하면서 선교사를 동원하여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 정도로 청소 문제로 고민을 하였습니다. 수원 스테이크는 큰 축복을 받아서 교회 부지가 넓고 향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으나 그것들을 제대로 깎아주지 않아 머리를 깎지 않은 띠꺼머리 총각처럼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넓어 요즘처럼 차가 많아질 때에는 주차하기에 대단히 편리하나 여름에 비만 오면 온갖 풀들이 제 세상 만만듯이 자라니 그것을 제초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시간제 관리인으로서 그것까지 청소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향나무를 예쁘게 깎아주려고 그 비용을 알아보았더니 200백만원에 있어야 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병병하여 오히려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우리 회원들이 깎도록 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틈틈히 회원들과 함께 깎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을 함께 함으로써 부지런함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서로 우정을 나누고 협동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스테이크를 관리하면서 어려움보다는 기쁨과 감동이 더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랫 동안 비활동이었던 회원들이 교회로 다시 찾아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새로 침례 받은 회원이 한번호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켰을 때 그 믿음직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갔다 올 때 독신 자매가 혼자서 집에 돌아가기가 무서우니 12시가 다 되었는데도 집에까지 바래다 주거나 어떤 때는 늦게 들어가서 저녁을 달라고 할 수 없을 테니 회원 집에 가서 성전 갔다 오는 길이니 저녁을 좀 달라고 하여 함께 먹고 들어가게 하는 감독님, 밤 늦게 그러한 감독님을 맞이한 집에서는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신실한 자매님, 집이 시골이라 성전에 갔다오면 차가 없어 집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도 열심히 성전에 다녀가시는 감독님, 육신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농사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회원들을 관리하시는 지부장님,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주일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형제님, 비회원과 결혼한 자매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정성에 감동하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형제님, 모든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거절한 자매님, 선교사들을 늘 따듯이 보살피는 감독/지부장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엌에서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자매님들, 화요일 날이 성전가는 날인데 지금까지 회사에다가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빠져나와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다녀오던 형제가 지사장님께 매월 두번째 화요일 저녁에는 성전을 다녀와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간단히 승낙을 받아들고는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과 함께 스테이크 부장에게 감동적으로 그것을 보고하였던 고등 평의원님, 이러한 회원들이 바로 시온을 만들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스테이크 부장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감독/지부장님과 회원들이 있는 한 우리 스테이크는 시온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우리 인간이 땀흘려 일하게 만드셨고 자매는 잉태하는 고통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구도자를 구하고 침례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진설명 : 좌로부터 아들 이명신 형제, 이용환 부장, 부인 한인자 자매, 딸 이연신 자매

힘들여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보지 않은 사람은 깨끗한 교회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기쁨을 모를 것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성취하는 데에서 얻은 기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렵게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정에서 아내가 애기 보면서 안식처를 만드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를, 또한 가정의 안락함과 그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로움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이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표시이며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한가지 소망은 교회에 많은 아름다운 자매와 아주 믿음직스러운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부디 겸손한 마음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형제의 직장이 주는 안정성이나 명성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인간 형제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자매들은

기억하시고 형제들은 자매들이 형제를 따라왔을 때 영원히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며 이 생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시온의 스테이크는 모든 회원들이 그러한 기쁨을 느끼게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며 스테이크 부장은 유창한 말씀으로 회원들을 감동시키기 보다 스스로 사다리를 들고 나무를 깎으며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그 속에서 참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회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감독/지부장님과 의로운 회원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며, 생업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 성전에 가려고 하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안양 스테이크가 탄생되면서



이영환 안양 스테이크 부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강화 프로그램에 의해 안양 스테이크가 새로 탄생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전세계에서 여섯 나라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14개 스테이크 중에서도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 수원 스테이크와 안양 스테이크가 분리되었음은 분명히 주님께서 안양 지역을 시온의 스테이크로 조직한 후 성도들의 마음이 순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의 뜻이 소속 회원을 하나로 결속시켜 의로움을 키움과 동시에 악에 대항하는 피난처의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안양 지역의 여섯 와드(시흥, 독산, 안산, 과천, 군포, 안양)를 하나로 결속시켜 주님의 사업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안양 스테이크는 조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서울 서 스테이크의 방대한 지역적 분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함을 알아야겠고, 우리들 자신이 회원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우리 이웃 사람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모세서 7:18) 하라시는 말씀은 곧 안양 지역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야 할 말씀입니다.

저는 안양 스테이크가 비록 소규모 스테이크로 조직되었을지라도 스테이크 역원 및 감독님께서 아니 부름 받은 모든이가 부름에 기꺼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은 그들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활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라는 고마쓰 장로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경전 속에 등장한 예언자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지금의 우리들이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시련과 역경을 긍정적으로(기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또 빌립보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겪은 시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바울의 공통점은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였습니다.

머지 않아 안양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고마쓰 장로님의 말씀과 요셉과 사도 바울의 행동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

강순례 자매
(대전선교부)

1992년 10월 19일~10월 30일.

이 기간 동안 저는 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 인내, 겸손, 자비, 근면... 등등 이 모든 것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저를 주님의 도구로서 불러 주시고, 이제 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우기 위해 선교사 훈련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의 생활들은 틈이 없이 뻘뻘하게 짜여진 것이었지만 늘 행복했고 만족감으로 채워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갈 때면 밤 하늘 아래에 빛나는 모로나이상을 바라보며 내 나침남대로의 목표를 생각해 보며 새로운 다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훌륭했으나 특별히 몇가지에 대한 잊지 못할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사랑을 지닐 때에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살펴며 사랑을 보인다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행함에 있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인간의 사업이지, 주님의 사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 있을 동안 서로의 간증과 목표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을 지녔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진정, 배우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히 생활할 때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정 이 선교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임과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간증으로 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임을 간증드립니다.

끝으로 저에게 큰 교훈을 던져 준 경전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저는 이 사업을 아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92 하반기 서울 북 스테이크 대회

서울 북 스테이크 하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참으로 회개하고 신앙으로 생활하며 선행하고, 쉬지않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께서..... 수천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라는 주제로 10월 17일(토)과 18일(일) 양일간에 걸쳐 이준택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녹번 와드에서 개최되었다.

이준택 스테이크 부장은 말씀을 통해 서울 북 스테이크가 금년 6월

원당 지부가 신설되는 등 계속적인 확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교사 및 회원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역이 있으므로 선교 전시회를 통해 이 지역에 많은 물몬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회원 서로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며 스테이크 단위로 보이스카웃 연맹에 가입하여 청소년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자 및 역원들이 힘쓰자고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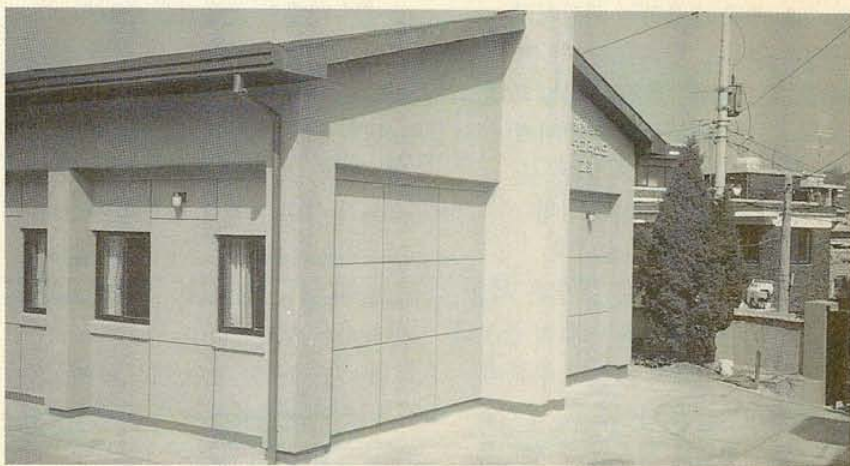
5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신권 역원들의 개편과 새로운 부름 및 신권 승진이 있었는데 정태걸 형제와 박기웅 형제가 새로운 고등 평의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



새로운 교회 건물 소개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1992년 11월 1일 완성)

드라이비트 건물
건축면적 : 288㎡
연면적 : 288㎡
대지면적 : 1,117.4㎡
주소 : 성남시 중원구 중동 1438번지
☎ 0342-47-1801



'92 하반기 광주 스테이크 대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5:6)는 주제로 광주 스테이크 하반기 대회가 10월 17~18일 양일 간에 걸쳐 김제안 스테이크부장의 감리로 열렸다. 토요일 모임에서는 “모든 교회 회원은 선교사이다.”라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을 주제로 이현경 자매는 선교사로서 봉사했을 때의 경험을 나누었고 황형욱 형제는 순종을 통한 선교 사업에 대해서 말씀했다.

일요 총회에서 김제안 스테이크 부장은 주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듣고 행하면 온전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지닐 때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했다. 이 날 참석하신 박병규 서울 성전장은 자녀와 가족을 교회로 데려오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선교사로 내보내고, 성전 의식을 받도록 하는 등, 청소년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정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강조하셨으며, 이강우, 김금희, 대전 선교부장 내외분은 선교 사업이 교회의 생명이며, 모범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선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대회는 650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했으며 20여년 동안 지부장과 감독으로 봉사하셨던 여수 와드 장용택 감독이 해임되고 황인철 형제가 새로운 감독으로 부름받았으며, 9명의 새로운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탄생했다. (장로신권: 백운 와드 정주태, 김진호 형제, 풍향 와드 윤영통 형제, 송정 지부 변재원, 임경찬 형제, 여수 와드 김승환, 박근호 형제, 순천 지부 정래창, 장영경 형제)

광주 스테이크 합창단과 선교사들은 헨델의 “할렐루야”와 “영광”을 함께 준비해 불러서, 영적인 느낌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이고 가장 값있는 일인 선교 사업을 위해 결심과 간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

(기사 제공: 윤원철 형제)

역원 변경

●영동 스테이크

성남 중앙 지부장: 최기태 형제
(전임자: 오정오 형제)

●안양 스테이크

과천 와드 감독: 이병학 형제
(전임자: 김수정 형제)

●광주 스테이크

여수 와드 감독: 황인철 형제
(전임자: 장용택 형제)

—안 내—

1. 성도의 벗 구독자 중 '92년 11월호 파본을 받으신 분은 교환해 드리오니 출판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38-6832

우편: 서울시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2. 성도의 벗 원고 모집

성도의 벗 편집실에서 성도들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간증, 경험, 소개 등을 다룬 것으로 반드시 교회와 교회 회원들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각 월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새출발
- 2월: 세미나리 새벽반
- 3월: 봉사
- 4월: 회원 선교 사업
- 5월: 가족 역사 사업
- 6월: 성도의 벗

보내실 곳: 우편번호 133-600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담당자



신간 안내

—복음 그림 팩킷—

아이템 번호 : 34730 320

가격 : 미정

구입방법 : 1. 직접구입

청운동 서적 판매대

신당동 서적 판매대

신촌 가먼트 센터

2. 우편 주문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본 팩킷은 구약 18매, 신약 40매,
물몬경 20매, 교회사 15매, 기타 6매
등 총 104매의 복음과 관련된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크기는

216mm×279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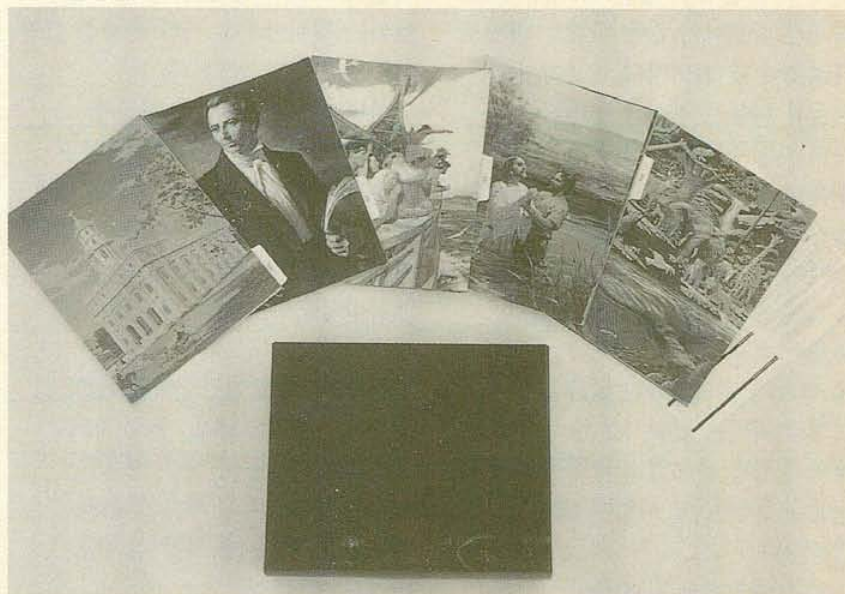
교회 모임 및 가정에서 공과를 할
때 사용하게 되며 교사나 부모들은

이전의 낱장의 그림을 이용했던
불편을 덜고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팩킷에 포함된 그림 외에도
성도의 빛이나 다른 교회 책자에서

복음과 관련된 좋은 그림을
개인적으로 분류하여 함께 보관,
활용할 수 있다.

'92년 12월 말에 완성되어 '93년
1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



선교사 훈련원 제 145 기

(1992. 10. 19~1992. 10. 30)

〈성명〉	〈출신지〉	〈선교부〉
강순혜 자매	청주 S/복대 W	대전 선교부
김경수 장로	광주 S/순천 W	서울 선교부
김형우 장로	안양 S/시흥 W	대전 선교부
이경자 자매	대구 S/경주 W	서울 선교부
이미숙 자매	부산 서 S/괴정 W	서울 서 선교부
이현정 자매	부산 S/광안 W	대전 선교부
정동헌 장로	전주 S/중앙 W	대전 선교부
전영자 자매	서울 S/신당 W	부산 선교부
조기천 장로	동 S/미아 W	부산 선교부
황옥진 자매	강서 S/역곡 W	대전 선교부



뒷줄 왼쪽부터 : 김형우, 김경수, 조기천, 정동헌

앞줄 왼쪽부터 : 이경자, 이미숙, 강순혜, 황옥진, 이현정, 전영자